

“인간관계자원을 축으로 한 도시농촌 교류활동의 유형화”



도쿠노 사다오 교수
일본 쿠마모토대학

1. 지역진흥활동에서의 ‘표창장’ 과 ‘마을의 미래’

현재, 일본 각지에서 농촌의 진흥을 위해 도시농촌 교류활동이나 그린 투어리즘(이하 GT)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봄이라고도 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 중에는 활동의 목적이나 기법마저 애매한 상태에서 ‘도시 사람을 불러들이면 농촌이 활성화 된다’는 안이하고 무계획적인 사업도 많다. 그 결과, [정책]적으로 의도된 [원칙]과 활동의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커서 행정 당국이 도시농촌 교류나 GT를 장려하면 장려할수록 반대로 지역이 분열되거나 사람들의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마을은 계단식 논, 오너제나 특산물 직판장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 자치대신상이나 전국농협중앙회장상 등 수많은 표창장을 받았지만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건 4~5년에 불과합니다. 정말 너무 지쳤습니다.’ 라는 발언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언자는 구마모토현(熊本縣) 가미마시키군(上益城郡) 야마토초(山都町) A마을의 前지역 진흥회 회장인 O씨(72세)이다. A마을(87호)에서는 고령화나 세대의 극소화(독거세대, 고령자 부부세대, 50세 이상의 2세대로 이루어진 중고령자 소세대 등)가 진행되는 가운데 1999년부터 계단식논

의 오너제와 특산물 직판장에 마을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평균 오너 17팀(58명)이 22.5a의 황폐한 땅을 재생하는데 그쳐, 마을 전체 논 면적 60ha의 불과 0.4%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면에서도 연간 수입 75만엔으로 관리비나 교류회 지출이 더 많아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 당초 행정당국에서의 ‘농지 황폐화를 막고 소득향상으로 연계 시킨다’는 [원칙]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두 함께 마을발전의 꿈을 쫓았다. 도시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마을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업에 지쳐버렸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 다만, ‘새로운 마을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는 않는다’는 발언에서 조금은 위안을 얻지만 새로운 형태의 [소비되는 농업 또는 농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마을 등에서 실시한 계단식 논, 오너제나 도시농촌 교류가 왜 이런 [원칙]과 [현실]의 격차를 가져왔는지 또한 [소비되는 농업 또는 농촌]이라는 현상을 낳았는지 분석 및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농촌 교류나 GT를 농촌 활성화 봄으로 인식하여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태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자세가 매우 부족하다. 타겟인 도시주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지 명확하지 않거나 [정책] 목표로서의 도달점이 ① 인구(담

당 주체)의 확보인지, ② 경제적 효과(소득 향상)인지, ③ 지역활동의 활성화인지 목표([사업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도시주민을 끌어들이 [지역 활동]을 펼치면 지역진흥대책이라는 형태로 [정책]이 행정 주도로 입안되고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케이스가 많아 [꿈에서 해매는 도시농촌 교류]가 되고 있다.

적어도 [사업]이란 경제적 목표와 수행 주체 확보를 위한 일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순서를 확립한 후 [사업] 효과를 측정하면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지역활동]의 효과 측정은 매우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지표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 목표나 담당자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 활동도 많다. 이 [사업]과 [지역 활동]의 성격적 차이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도시농촌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

2. 도시농촌 교류의 유형화 기준

현재 봄을 이루는 도시농촌 교류활동의 문제점을 [사업]과 [지역활동]의 [정책]적 미분화라고 지적했지만 또 하나 큰 문제가 있다. 도시농촌 교류활동의 대상자, 타겟의 선택 문제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쪽은 완전한 타인인 도시민의 人口量과 경제적 능력에 기대를 걸고 농업 및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더욱 고도로 경제화하자는 관광정책적 성격이 강한 활성화 정책이다. 일반적인 GT(농촌민박, 농가 레스토랑, 농산물 직판장 등)이나 농업체험 이벤트 등의 [좁은 의미의 도시농촌 교류] 활동이며,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당연히 그 사업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뜻있는 사람들)의 자기실현적 행위를 [지역활동]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류 상대를 특정화하지 않고 도시가 가진 人口量的·經濟的 資源을 [고객]으로 대상

화하여 농촌이나 산촌으로 불러들이는 교류활동이다.

한편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본가의 노부모 등을 위한 생활 지원이나 농업 활동 지원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농촌의 본가와외의 관계나 연대를 유지 강화하는 교류이다. 이 교류활동은 경제적인 [사업]도 주체적인 자기실현 활동도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활동]이라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담한 일상생활에 담긴 가족이나 친족간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관계성 유무나 강도가 현재의 과소화 되고 있는 농촌의 가족세대나 마을의 유지나 존속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과의 관계는 가까운 미래의 농가와 마을의 존속을 좌우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대상자가 특정화된 도시 거주자(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 등)와의 교류활동도 [넓은 의미의 도시농촌 교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의 인구론(담당 주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각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촌 교류는 [좁은 의미의 도시농촌 교류]와 [넓은 의미의 도시농촌 교류]의 중간 형태나 복합 형태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류 대상이 되는 사람들(타겟)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도시농촌 교류활동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타겟에 의한 유형화가 도시농촌 교류활동의 내용 즉, [사업]과 [지역활동]과 어떻게 연동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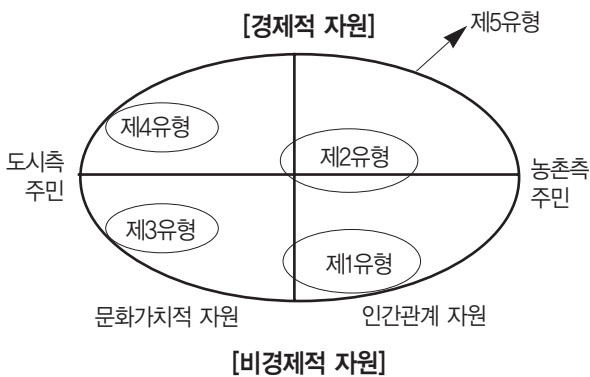
3. 도시농촌 교류활동의 도식적 분류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도시농촌 교류의 5가지 유형을 도식적으로 분류하면 그림1과 같다. 먼저 세로

축에 활동이나 사업의 목표가 경제부양이나 소득획득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원 영역]이나 가족세대나 취락의 담당 주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관계적 자원영역] 또는 자연이나 농업적인 생활세계로의 자기실현을 목표로 한 [문화적, 가치적 영역] 즉, [비경제적 자원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로축은 활동의 타겟을 지역주민에 중점을 둔 활동과 도시주민을 중시한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촌 교류는 농촌의 진흥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농촌을 무대로 한 활동, 사업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 측 주민 및 농촌 측 주민의 양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 및 사업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중점을 두는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제5유형’은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 전체와 관계되는 종합적 사업이다. 이상과 같이 이념 형태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원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제4유형 - 관광형 교류’는 사업자의 [+알파 소득]이 될 수는 있어도 지역경제 전체적 부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의 부양을 위해서는 ‘제5유형’의 종합적 사업 성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여 말한다.

그림 1 도시농촌 교류의 유형 분류



4. 도시농촌 교류의 5가지 유형의 구체적 성격

가. ‘제1유형 -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 婚姻型 교류’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을 축으로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갖는 고유의 사회관계에 의거한 교류이며, 교류 상대가 한정된다.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현재적 후원자] 역할을 담당한다. 당연히, 귀농자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농업 및 촌락의 담당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농촌의 인구적 구조 문제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교류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사업]으로도 [지역활성]으로도 인식되지 못하고 개별 농가의 개별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T형 취락 점검’ 등에 따라 순서를 밟아 가면 인적 관계 자원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취락도 많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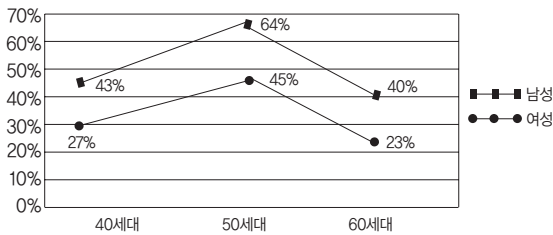
다음으로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의 U턴 문제인데, 행정 당국 등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귀농’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분명히 베이비붐 세대의 U턴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U턴이라기 보다 [주유(周遊)]할 것으로 보인다. [주유]란 현재 거주지인 도시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이번 주는 아소, 다음 주는 운젠으로 여행을 떠나고, 그 다음 주는 고향의 시골집에 얼굴을 내미는데, 하룻밤 자거나 당일치기로 돌아가는 행동 패턴이다.

행정 당국 등의 U턴 의식 조사에서는 남성을 축으로 한 조사가 정책 희망에 따라 횡행되고 있다. 그림2는 도쿄 23구에서 조사한 연령별, 남녀별 U턴 희망 의식조사 결과인데, 50대 남성이 64%로 가장 높지만 60대가 되면 45%까지 떨어진다.

여성은 각 연령대별로 남성보다 20% 정도 낮다. 이 조사는 어디까지나 U턴 희망의식조사이므로 실행 사례는 크게 낮아진다. 또한 60대가 되면 급격하게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경우 U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성의 수치가 낮은 것은 자신의 고향도 아닌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불안과 거부감이 깔려 있을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U턴은 개인 차원의 의식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현실적인 생활 문제이다. 행정 당국 등의 정책적 희망이 강한 개인 차원의 의식조사가 시행되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U턴 여부는 본가와외의 거리나 일상적 연대의 깊이 등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복잡한 요인도 있으므로 정식화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2 도시주민의 농촌 거주 희망 조사



나. '제2유형 - 마을 주민을 축으로 한 [지역활동]형 교류'

가장 일반적인 지역활성화 활동형 도시농촌 교류 형태이다. 말하기는 좀 꺾끄럽지만 '도시민을 수단으로 삼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류활동'이다. 당연히 도시측 교류자에게도 메리트가 있다. 전형적으로는 구마모토현(熊本縣) 미나마타시(水俣市) 구기노(久木野) 마을에서 전개된 아이린칸(愛林館) 활동으

로 대표된다. 마을 안에 아이린칸이라는 교류센터(시설)를 세우고 농산물 직판, 농산물 가공, 농작업 체험, 大豆(콩)오너 제도, 일하는 아웃도어의 식목 활동, 숯 굽기 체험, 계단식 논 石築 쌓기 강습회, 계단식 논외의 등불 켜기 활동, 가족요리 대집합, 논농사 학교, 자연환경학습 연수,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지역활동이나 이벤트를 지역 농촌 주민이 적극적인 참가하는 형태로 기획하여 도시주민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아이린칸은 미나마타시의 가장 벽촌이며 과소화, 고령화된 구기노지구(구 구기노무라)에 산촌진흥보조금으로 세워진 지역활성화센터로 관장은 전국 공개 모집에서 선발된 사와하타 토오테이(澤畑亨)이다. 아이린칸은 현지 주민이 조직한 '구기노지역진흥협의회'가 운영하며 사와하타 관장이 경영을 위탁(고용) 받았다. 활동비는 미나마타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아이린칸의 사업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아이린칸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다양한 도시농촌 교류활동을 실천하면서도 항상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점이다. 즉,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촌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를 위해 사와하타 관장은 고령자나 일반 주민이 참가하기 쉬운 활동을 기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항상 촌장이나 지역 지도자와 연락하여 각 세대의 상황도 꼼꼼하게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나, 글로 분석하면 아주 당연하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활동이다. 첫째, 도시농촌 교류라고 하면서 이만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 활동이나 이벤트를 유지하기 위해 도시주민의 니즈나 참가하기 쉬운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낮은 수익성과 지도자의 자질이다. ‘제2유형’은 마을주민을 축으로 한 [지역활동]형 교류이므로 농산물 직판이나 가공품 판매도 있지만 판로를 뚫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기본적으로는 계단식 논외 보전이나 가정요리大集合 등의 마을활동 지원이라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린 칸도 활동비 문제로 약전고투하고 있다. 사와하타 관장의 인건비나 아이린칸 시설관리비는 미나마타 시에서 일부를 지원받고 있지만 활동비는 항상 부족하다. 더구나 지자체의 재정압박이나 市長교체 등에 의해 점점 안정된 재원이 고갈되는 추세이다.

이를 메워주는 것이 관장 등의 다채로운 인맥을 이용한 인간관계자원의 동원을 통한 활동의 유지이다. 지도자의 자질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제2유형’의 도시농촌 교류에서 지도자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한 활동가가 아니라 활동이나 사업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속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튀어서도 안 된다. 동시에 도시주민을 끌어당기는 개인적 매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분명 히로시마현(廣島縣) 소료초(總領町)의 “가쿠테쥬쿠 이에모토(逆手塾家元)”의 와다 요시하루(和田芳治)나 에히메현(愛媛縣) 후타미초(双海町)의 “석양의 마을 만들기”로 유명한 와카마쓰 신이치(若松進一) 등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귀한 존재이며 [사랑이 있는 사기꾼]이기도 하다(주₂).

다. ‘제3유형 - 自然派, 농업적 指向派 도시민과의 교류’

[좁은 의미의 도시농촌 교류] 활동 중에서도 가장 가치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활동이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도시화, 산업화가 발전한 현대사회에 의

문을 갖고 자연과의 관계나 환경문제 및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농업이나 농촌사회가 가진 가치를 재평가, 재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농촌 사회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주민과의 공명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업, 농촌의 가치를 열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고마운 사람’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I턴에 의한 신규 농민이나 경관보전활동, 그리고 전통식이나 문화 재발견, 농촌민박의 단골 등 다양한 농동적 활동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교류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적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사람도 많다. ‘제2유형’이 농촌 주민이 주역이 되는 경우가 많은 교류활동인데 비해 ‘제3유형’은 도시주민이 주역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구마모토현(熊本縣) 오구니마치(小國町)의 목콘칸(木魂館)을 주축으로 전개되는 “규슈 투어리즘 대학”과 같이 이러한 가치관을 더욱 고도화하는 학습과 구체적인 활동 기법을 전수, 연구하는 시스템도 ‘제3유형’의 도시농촌 교류의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려는 혁신성(반근대화주의)을 가지기 때문에 도시농촌 교류나 GT의 이론적 근거와 새로운 실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GT’ 뿐만 아니라 ‘슬로 라이프’, ‘슬로푸드’, ‘농업적 세계’, ‘현지 생산 현지 소비’, ‘자연체감주의’ 등 새로운 용어를 주고 받는 네트워크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라. ‘제4유형 - 도시주민과의 관광형 교류’

[협의의 도시농촌 교류] 활동 중에서도 경제적 [사업성]이 강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GT(그린 투어리즘)이라고 총칭되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직판장, 농가 레스토랑, 농촌민박, 온천시설, 휴게소 등 일정한 소득이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경제활동이 중심이 된다. 단, 자연체험 학습, 논농사학교 등의 농촌체험, 캠프장이나 낚시터 등 아웃도어 활동, 반딧불이 축제나 코스모스 가로수길 등의 이벤트는 사회교육이나 스포츠 등의 학습적 성격이 강하며, 소득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사업]적 성격을 가진 활동이기도 하다. 이런 활동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인으로서의 ‘비일상적 세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농업 및 농촌의 일상’을 자원화하여 도시의 인구량과 경제력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이다. 기존의 관광사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만 대규모 관광산업(매스 투어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최근 행정 당국의 거품에 가까운 도시농촌 교류 활동 추진과 GT의 질의 대중화 속에서 양자의 경계선이 점차 애매해지고 있다.

‘제4유형’의 도시주민과의 관광형 교류가 붐을 이루거나 과열화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농촌주민들이 착오라 할지 오해하기 쉬운 사기에 가까운 논리가 있다. ‘인구 1만명인 마을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오면 마을이 활성화 된다’는 말과 개념이다. 그러나 이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한 ‘사기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 원래 인구 2만명의 마을이 현재 인구 1만명까지 감소한 것이므로 100만명과의 교류는 매우 매력적인 숫자이다. 그러나 분모가 다르다. 인구 1만명의 마을은 1일 1만명의 주민이 있다, 한편 100만명의 교류객은 1년간 = 365일이라는 숫자이다. 분모가 다르다. 1일 1만명의 마을은 연간 인구 365만명이 된다. 누가 생각해도 100만명 대 365만명이 라면 마을 사람들의 인구가 많다. 그러나 1만명 대 100만명이라고 쉽게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도시주민을 유치하려고 한다. 365만명 대 100만명일 뿐만 아니라 교류객의 경제활동은 매우 좋다. 교류객이 시골 이발소나 문구점을 찾을 것인가? 전자제품 대

리점이나 양품점을 찾을 것인가? 철물점에 수도 수리를 의뢰할 것인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유후인(湯布院) 등의 특수한 장소나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교류객은 현지주민의 1/10의 경제적 수요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나 사고조차 정지된 상태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도시농촌 교류나 GT의 경제 효과에 열을 올린다. 이런 “교류인구론”적 지역진흥책은 때로는 형편없는 [詐欺와 같은 교류 효과]를 낳는다. 정말 조금만 더 냉정하게 자신들의 [활동]이나 [사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가진 형태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바란다. 이런 합리적 예측도 없이 행정 당국 등이 그저 꿈과 같은 [김치국부터 마시는 식]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하지만, 관광적인 ‘제4유형’이 모두 실패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민박이나 농가 레스토랑 사업은 지역경제 부양으로 이어지기 힘들지만 개별 농가나 그룹의 [+알과 소득]으로는 충분하다. 이 [+알과 소득]은 농촌 여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며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人吉市)의 혼다 세츠(本田節)씨가 주최하는 “히마와리테이(ひまわり亭, 해바라기의 집)” 활동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히마와리테이”의 멤버는 2차대전 이후 생활 개선 그룹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다. 장아찌 등의 농산물 가공활동이나 고령자를 위한 복지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 등을 지역에서 펼쳐오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혼다 세츠씨가 큐마카와(球磨川) 호반에 自費(보조금 없이)로 낚은 민가를 옮겨 세우고 향토요리 전문의 농가 레스토랑 “히마와리테이”를 열었다. 남편이 일급 건축사이므로 도움을 받았다. 조리 멤버는 오래 전부터 생활개선 그룹에서 활동해온 선배들, 즉, 평균연령 72세의 농가 고령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이 가진 전통적이고 다

새로운 식문화 기술이 혼다 씨의 뛰어난 경영 및 활동 능력에 의해 빛을 발하며 매우 화려한 농가 레스토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시 찾는 단골손님도 많아져 작년에는 연말연시용 특별 요리 주문이 300 세트나 들어왔다.

이 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알파 소득]으로도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령자라도 자신의 생활기술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과 그룹 활동의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어서 매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 ‘제5유형 - 종합사업형 교류’

가장 ‘도시농촌 교류활동’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 유형이다. 유형적으로는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의 모든 교류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내포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치현(愛知縣) 이가(伊賀)의 “모쿠모쿠 팜”이나 후쿠오카현(福岡縣) 오카가키마치(岡垣町)의 “부도노키(ぶどうの樹, 포도 나무)”와 같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농업의 6차 산업형” 사업형태를 도시농촌 교류사업으로 확대 전개하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장벽이 매우 높고 성공사례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경영자의 자질과 사업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언론매체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으며 도시농촌 교류사업의 성공 사례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후쿠오카현의 “부도노키”를 사례로 들어 이 ‘제5유형 - 종합사업형 교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장 고야쿠마루 슈이치(小役丸秀一)씨(53세)는 포도농가인 고야쿠마루 오타로(小役丸卯太?) 장남으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관광농원 등에도 전하는 뿌리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농업후계자이다. 동시에 모친은 지역의 해변가에서 여관을 경영한 일도 있어 어린 시절부터 요리나 식문화에 관한

관심도 높아 대학 졸업 후 ‘즈지조리사전문학교’에서 공부한 후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리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자질을 자원으로 관광포도농원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농촌레스토랑(양식), 빵 공방, 햄 공방, 와인공방 그리고 미니동물원, 결혼식장이나 온천 숙박시설 병설로 농업부문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바닷가 여관과도 제휴를 맺으면서 일본식 연회에서 일식 런치 뷔페는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타큐슈 시내나 후쿠오카 시내, 요코하마 등에도 레스토랑의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 각지의 관광형 레스토랑의 경영 재건 컨설턴트 의뢰를 많이 받고 있다. 현재 총사업 판매액은 약 25억 엔, 파트타임 근무자까지 포함하여 종업원이 200명이 넘는 수완 좋은 경영자이다. 이처럼 고야쿠마루 사장은 NHK의 ‘신경제인 왕래’ 등의 방송에도 출연한 비범한 비즈니즈맨이지만 본질은 농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고야쿠마루 씨의 활동 및 사업은 도시농촌 교류의 ‘제4유형’인 도시주민 대상의 관광형 교류사업의 “일인자”로서 평가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나 사업수행에 관해서는 좌우명인 ‘오른손에 꿈, 왼손에 주판’을 주장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른 인간상이나 사업상이 눈에 들어온다. 즉, 도시농촌 교류의 ‘제4유형’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1유형’에서 ‘제4유형’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부도노키” 사업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농민들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제2유형’의 교류사업이다. 줄을 서야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손님이 많은 레스토랑의 식자재를 가능하면 80%는 지역 농

수산물을 사용한다는 방침은 당연히 현지 농어민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고야쿠마루 사장은 자주 농가나 어민들을 자주 찾아다닌다. 그리고 'A급 상품은 농협에 내다 파세요. 우리 식당은 B급이나 C급 상품이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 이유는 손님은 껌질을 먹지 않는다. 조금 빼돌리지거나 흠집이 있어도 이들 식재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것이 프로 요리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농민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고령자나 정년퇴직자도 열심히 채소 농사를 짓고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채소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들 생산자와 요리사가 합동으로 1회 회합을 갖고 “부도노키”의 신작 메뉴를 만든다. [식문화를 위한 농업이 아니라 농업에서 식문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도시농촌 교류활동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매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활동’이라는 객관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보다도 ‘마을을 위해 뭐든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와 같은 주관적, 감정적 동기가 지나치게 강조된다. 분명 현재의 농촌의 현실은 절박하다. 열의가 있는 주체(의욕이 있는 사람)는 존재 자체로 매우 귀중하다. 그러나 열의만으로는 제자리걸음만 할뿐 마을을 유지할 수 없다. 도시농촌 교류의 연구 분석이 현재와 같이 행정당국의 거품이 실린 정책 전개와 의욕이 있는 사람들의 실천 사례 소개만으로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 도시농촌 교류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㉞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 도쿠노 사다오 교수의 사례발표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 황민영 위원장 인사말

주석

(주1) 'T형 취락 점검'은 고야자(小字, 일본의 행정구획의 단위, 우리나라 리(里)보다 작은 단위) 마을을 단위로 가족, 세대 구성과 도시로 나간 가족이나 친인척의 현상과 10년 후를 예측하는 주민 주체의 워크숍 성격의 조사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소론의 새로운 모델' <농업과 경제> 10월호 2002년을 참조할 것.

(주2) [사랑이 있는 사기꾼]에 대해서는 <농촌의 행복, 도시의 행복(農村의幸, 城市의幸) NHK출판, 2007년의 제4장 "농업"의 매력 넘치는 사람들의 세계를 참조할 것.